
1. 정세지수 사업 자료집

목 차

예산정책처

1.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개요
2.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예·결산 현황
3.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문제점

입법조사처

1.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효과성 분석
2.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활용도 방안
3. 타 정부부처와의 중복성(정보분석판단) 문제

도서관

1. 독일의 체제전환지수
2. 미국의 북한 정세지수 사업사례 및 내용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효과성 분석

정 문 종 과 장

정 진 욱 분석관

1.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개요

- 북한정세지수 사업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판단이 통합·적용된 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북한 정세에 대한 분석틀을 확보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북한정세지수 정보지원시스템은 측정항목별로 측정값을 도출하여 지수값을 산출하는 지표관리시스템과 국내외 언론의 북한 기사에 대한 빈도·강도 등을 분석하는 내용분석시스템, 지수 산출과정에서 획득·생산하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분석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됨
 - － 지표관리시스템은 2011년도에 지표체계 개발이 완료되어 2012년도에는 고도화작업을 수행할 예정임
 - － 내용분석시스템은 2011년도에 빈도·강도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12년도에는 연관어휘 DB를 개발할 예정임
 - － 정보분석지원시스템은 2011년도에 기본적인 기능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임

[표 3] 북한정세지수 정보지원시스템 구성 및 기능

세부 시스템	기능	추진 경과 및 계획
지표관리 시스템	3가지 지수별로 지표와 측정항목을 등록하고 프로그램화된 산술식을 작성하여 개발 측정항목별로 측정값을 도출하여 지수값을 산출하는 시스템	2011년에 안정성 지수, 체제전환 지수, 위기 지수 등 3개 지수별로 지표체계 개발 2012년에는 2011년 개발한 시스템과 DB를 고도화
내용분석 시스템	북한 언론매체 또는 국내외 언론의 북한 기사에 대한 빈도·강도 분석 등을 통해 정량적인 측정자료를 생산하는 시스템	2011년에 빈도·강도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용분석 원자료로 노동신문(북)과 연합뉴스(남)를 활용 2012년에 연관어휘 DB를 개발하고, 내용분석 원자료에 중앙통신·조선신보(북) 등을 추가
정보분석 지원시스템	지수 산출과정에서 획득·생산하는 각종 데이터를 최신정보분석기법을 통해 활용하는 시스템	2011년에 기본 기능 설계 완료 및 기능 점검 작업 수행 예정 2012년에 개발 완료 예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예·결산 현황

- 북한정세지수 사업에는 2010~2012년까지 3년간 약 4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10년과 2011년도 집행률은 각각 97.2%, 95.2%임
 - 2011년과 2012년도 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각 4억 8,000만원, 5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음

[표 4] 북한정세지수 예·결산 현황: 2010~2012년

(단위: 백만 원, %)

	예산안	국회조정	예산액(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2010	1,850	0	1,850	0	1,850	1,798	97.2
2011	2,002	-480	1,522	-73	1,449	1,449	95.2
2012	2,121	-599	1,522	-	-	-	-

자료: 통일부

3.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문제점

□ 사업 계획 변경 문제

- 신규사업 편성 당시 2010년에 지수개발을 완료하고 2011년도부터는 유지보수 비용만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과거년도 지수산출,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게 되어 계획과 달리 2011, 2012년도에도 지수개발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었음

□ 북한정세지수의 공개 및 활용 문제

- 북한정세지수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보안유지 필요성과 공개로 인한 활용도 증대효과 등을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 공개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 사업성과의 불확실성

- 북한정세지수의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변수가 있는 북한의 정세를 정확히 예측하여 대북정책 수립의 지원도구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현재와 같이 1년에 한번 지수가 산출되는 방식으로는 대북정책 수립에 적시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신속·정확하게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간이모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북한정세지수 관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김 갑 식

요 약

질의 요지

- 북한정세지수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함

(회답일2012.07.31)

■ 조사·분석 방향

- 관련 자료를 분석함

■ 주요내용

-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효과성 분석
 - 용역선정과정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임
 - 금년에 본 사업이 종료되는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임
-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활용도 방안
 - 대북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타 정부부처와의 중복성(정보분석판단) 문제
 - 본 사업이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간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분석판단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에서 북한정세지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효과성 분석¹⁾

1) 통일부 주장

- 북한정세지수 사업은 '10년부터 3년간 개발을 하여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임
 - 정세지수 연구용역을 통해 △안정성 지수 △위기 지수 △체제전환지수 등 3개 분야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 또한, 정보화 용역을 통해 △정세지수의 지표체계 관리 △지수값 산출 △자료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지원시스템 구축도 병행하고 있음
- 정세지수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 검토 △국내외 전문가 자문·평가회의 등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객관적인 지표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 금년도에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을 통해 지표체계의 신뢰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근거에 바탕하여 북한정세분석 및 판단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정량적 측정과 정성적 판단이 통합 적용된 지수 모델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예측들을 확보함으로써
 - 보다 체계적으로 북한정세를 평가·예측하고, 나아가 실효적인 대북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임

2) 조사관 분석

- 용역선정과정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임
- 금년에 본 사업이 종료되는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임
 - 계속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종료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1) 분석대상 자료가 대부분 대외비이므로 통일부 주장에 대한 조사관 판단을 덧붙임

2.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활용도 방안

1) 통일부 주장

- 정세지수 전체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연간 단위로 북한의 △안정성지수 △위기 지수 △체제전환지수를 측정해 나갈 예정임
 - 한편, 간이모델 개발을 금년도에 함께 완료하여 최소한 분기별로 측정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것임
- 이러한 전체 및 분야별 지수값 산출 결과 등을 관련부처들과 공유하고,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북한정세 판단 및 대북정책 수립에 활용해 나갈 것임

2) 조사관 분석

- 대북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

3. 타 정부부처와의 중복성(정보분석판단) 문제

1) 통일부 주장

- 북한정세지수와 같이 북한체제의 안정성 등을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통합 적용, 종합적으로 지수화하여 판단·예측하는 사례는 없었음
 - 따라서 타 정부부처와의 중복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향후 북한정세지수의 활용과정에서 지수값 산출에 활용된 근거자료를 공유하고, 최종 지수값에 대한 부처별 고유 시각에 의한 해석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 정보의 상호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고, 보다 정확한 정세분석 및 판단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조사관 분석

- 본 사업이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간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분석판단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에서 북한정세지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독일의 체제전환지수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자료과

국 회 도 서 관 장

1. 개요

- 통일부 정세분석국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정세지수와 유사한 것으로 독일에서는 ‘체제전환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 국내 기사에서는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를 ‘베텔스만 변혁지수’, ‘베텔스만 변화지수’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본 회답서에서는 통일부 내부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제전환지수’를 채택하여 일관성 있게 기술하였음

2. 체제전환지수

가. 소개

- 베텔스만 체제전환지수(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는 128개국²⁾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법규범에 나타난 민주주의, 사회적 통합 및 복지 측면에서의 정치적 관리 기준을 평가함
- 2002년 이후 베텔스만 체제전환지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이행한 128개 체제전환 국가들을 기록해왔음³⁾
- 국가별 정치 운영의 수준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지표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구축함. 모든 내용은 인터넷에 올려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음⁴⁾

나. 연구기관 - 베텔스만 재단⁵⁾

- 베텔스만 재단은 독일의 유명한 종합 미디어 그룹인 베텔스만(Berteelsmann)이 세운 공익 지향형 재단으로 대표적인 독일의 기업재단임. 독일 사회가 개혁을 향해 나아가도록 사회 현안과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함
- 연구와 분석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에도 노

2) 시장기반 민주주의 또는 잠재적으로 전이하고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함

3) Wikipedia -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 SGI and the Transformation Index. 2012.09.03. 인용 : http://en.wikipedia.org/wiki/Sustainable_Governance_Indicators#SGI_and_the_Transformation_Index

4) 박명준. (2012). 독일 싱크탱크 산책. 서울 : 이매진, 159-160.

5) 박명준. (2012). 152.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나 연구기관이 갖는 관심과 다르게 매우 실용적이고 정책적 함의가 큰 데이터를 폭넓고 투명하게 구축하는 등 의미 있는 통계자료들을 자체 확보하고 있음

다. 체제전환지수 연구 진행 과정

- 연구 인력으로는 지표 개발에 20여명, 자료 조사에 6,200여명 참여하였음⁶⁾

체제전환지수 연구 진행 과정

차수	기간	연구내용
제1차	2001년-2004년	지수 초안 및 방법론 개발
제2차	2004년-2006년	지수 확정 및 지수값 산출
제3차	2006년~현재	지수값 산출 및 방법론 개선, 보완

주 : 자료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하였음

자료 : [지수 관련 해외 유사 사례\(통일부 요청자료\)](#). 3. 2012.08.31에 통일부 정세분석국에서 전송받음.

라. 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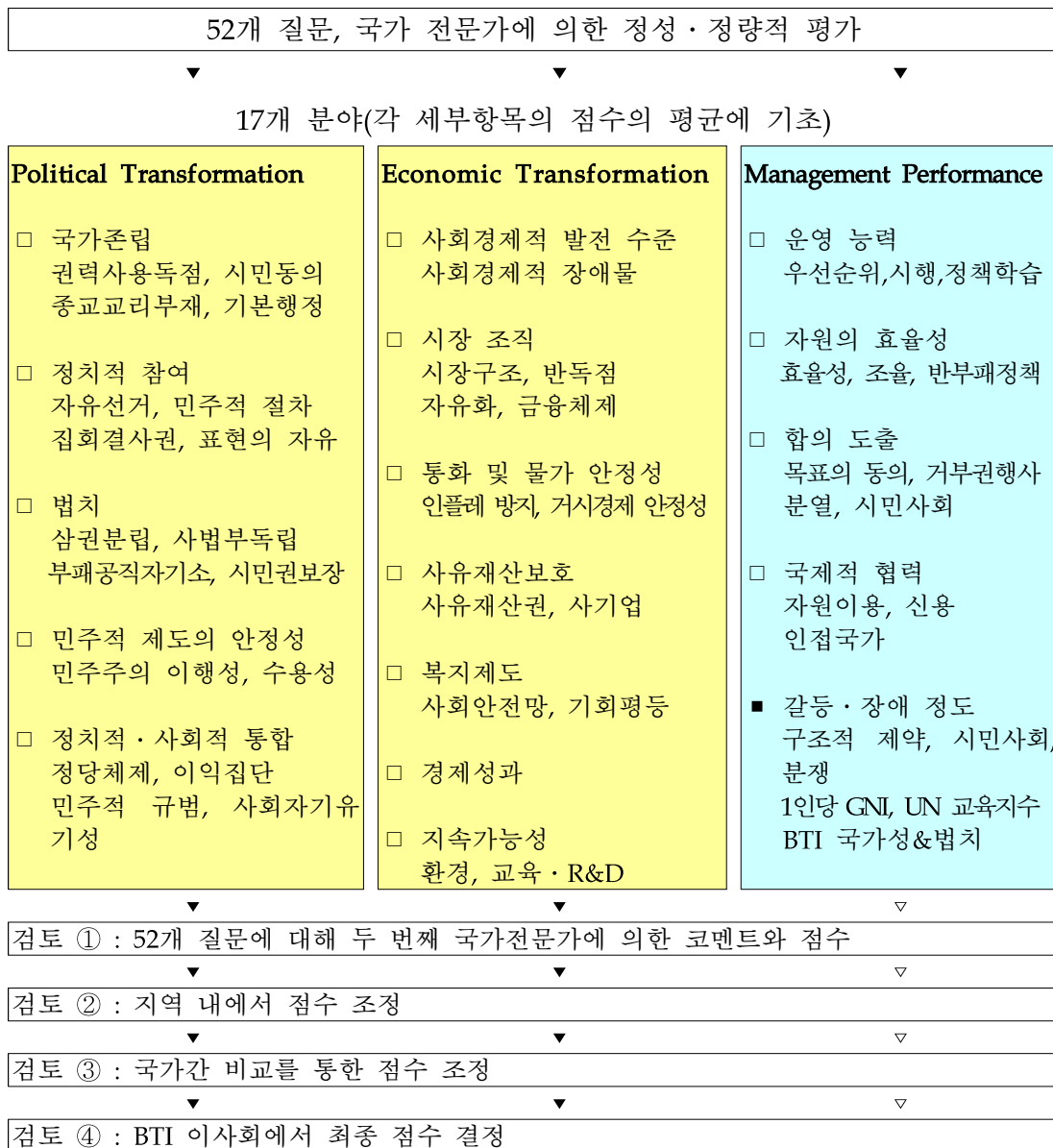
- 128개 각국에 대한 전문가들은 표준화된 코드북(codebook)에 방침으로 삼고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17개의 기준에 따라 그 정도를 평가함⁷⁾

6) [지수 관련 해외 유사 사례\(통일부 요청자료\)](#). 3.

7) Transformation Index BTI 2012 - Index : Methodology. 2012.09.11. 인용 : <http://www.bti-project.org/index/methodology/>

- 각 국가 당 2명의 전문가들이 표준화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항목별로 정성평가에 기초한 점수를 도출함. 해당 국가의 두 번째 국가전문가는 이 보고서를 검토함. 전문가의 의견이 다를 경우 지역 코디네이터가 이견을 조정함
- 지역 코디네이터들이 지역 내·지역 간 점수 비교를 하고, 발전·전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BTI 이사회에서 최종 점수 결정함⁸⁾

BTI 산출과정



8) 국민권익위원회. (2008). 2008년 해외정책설명회 국외출장보고서. 48.

1) 상태지수

- 법치에 기초한 민주주의로 사회·문화·정치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함
- 시장경제 기준은 사회적인 요인에 중점을 두는 거시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복지의 역할, 생태·교육적인 지속가능성도 고려함

2) 경영지수

- 강력한 정치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정치지도자의 전략을 짜는 능력, 운영 능력,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실천력 등을 고려함
- 자원 효율성은 인적·경제적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를 포함할 뿐 아니라 반부패 정책의 효과도 반영함
- 국제협력은 한 국가의 신뢰도와 그 국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를 평가함

바. 북한의 체제전환지수 사례

- 2012년 베텔스만 재단에서 발표한 북한의 체제전환지수는 다음과 같음. 북한은 상태지수에서는 전체 128개 국가 중 125위, 경영지수에서는 128위를 기록하였음

2012년 북한의 체제전환지수

		지표	점수	평균	순위
상태 지수	정치	1. 국가성	9.0	2.60	125위
		2. 정치참여	1.0		
		3. 법규범성	1.0		
		4. 민주제도 안정성	1.0		
		5. 정치·사회 통합성	1.0		
	경제	6. 사회경제적 개발수준	2.0	1.39	127위

		지표	점수	평균	순위
		7. 시장경쟁조직	1.3		
		8. 통화 및 가격 안정성	1.0		
		9. 사유재산	1.0		
		10. 복지제도	1.5		
		11. 경제성장	1.0		
		12. 지속가능성	2.0		
경영 지수	난이도	13. 난이도	7.5	-	128위
	관리 성과	14. 조종능력	1.3	1.38	128위
		15. 자원효율성	2.0		
		16. 합의형성	1.2		
		17. 내부협력전략 전망	1.0		

주 :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표로 재구성하였음

자료 : Transformation Index BTI 2012 - Status Index. 2012.09.04. 인용 : <http://www.bti-project.org/index/status-index/>

Transformation Index BTI 2012 - Management Index. 2012.09.04. 인용 : <http://www.bti-project.org/index/management-index/>

미국의 북한 정세지수 사업사례 및 내용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자료과

국 회 도 서 관 장

1. 개요

- 북한정세지수를 개발 중인 통일부 정세분석국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유사한 내용으로 미국의 평화기금에서 발표하는 '실패국가지수'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국가취약성지수'가 있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공식 발간물 또는 조사자료는 만들어진 바가 없었으므로 대신 내부문서 1부를 요청하여 받았음¹⁰⁾
- 조사 결과 평화기금과 브루킹스 연구소는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단체이며 연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내용은 발견되지 않음
- 각 연구기관에서의 지수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또는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찾고자 하였으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

2. 실패국가지수

가. 소개¹¹⁾

- 실패국가지수(the Failed States Index)는 177개 국가를 안정성과 수용력 수준에 따라 매년 순위를 정함. 2005년에 처음 발간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인용되고 있음
- 정부의 지도자와 사상가, 국제기구, NGO, 학계 및 언론매체에서 실패국가지수를 참조하고 있음. 이는 객관적이면서 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음

나. 연구기관¹²⁾

- 실패국가지수는 평화기금(Fund for Peace : FFP)연구소에서 연구·발표함. 평화기금 연구소는 1957년에 설립된 비정부 조직으로 독립적이고 비당파적 성격을 가짐. 본 연구소에서는 폭력적 갈등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힘씀

다. 실패국가지수 사업 진행과정

10) 지수 관련 해외 유사 사례(통일부 요청자료). 2. 2012.08.31에 통일부 정세분석국에서 전송받음.

11) The Fund for Peace - The Failed States Index. 2012.08.31. 인용 : <http://www.fundforpeace.org/global/?q=program-fsi>

12) Wikipedia - Fund for Peace. 2012.08.31. 인용 : http://en.wikipedia.org/wiki/Fund_for_Peace

- 제1차 연구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지수 및 방법론 CAST(Conflict Assessment System Tool)를 개발하였음. CAST 방법론은 각종 정성·정량 자료들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지수 값을 산출하는 것으로 평화기금 연구소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제2차 연구는 2006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지수 값 산출 및 지수·방법론을 개선·보완하였음. 연구 인력으로 30여 명이 참여하였음¹³⁾
- 실패국가지수는 'Foreign Policy' 2005년 7/8월호에서 처음 발행됨¹⁴⁾. 이후 2012년 현재까지 매년 7/8월 호에서 실패국가지수를 발표함
- 실패국가지수는 처음에 50개 국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177개 국가까지 확장되었음. 평화기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구함¹⁵⁾
 - 실패국가지수 범위를 확장
 - 근본적인 방법론에 대한 개선
 - 기타 언어콘텐츠를 통합함으로써 콘텐츠 원천 확장
 - 전문가 관리 및 컴퓨터 생성된 분석자료의 인간검증 강화
 - 실패국가지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 기술 인프라 유지

라. 산출방법

- 실패국가지수는 평화기금이 개발한 지수방법론인 CAST(Conflict Assessment Software Tool)분석 플랫폼에 기반 하여 산출됨
- 수백만 건의 문서들을 매년 분석하며 고도로 전문화된 검색 매개변수를 적용함으로써 각 국가에 점수가 배분됨. 이는 12가지의 주요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지표와 100개가 넘는 하위지표에 기반 한 것임¹⁶⁾

마. 북한의 실패국가지수 사례

- 2012년 실패국가지수에서 북한은 총점 95.5점으로 22위에 기록됨. 최근 5년간 북한의 실패국가지수 변동은 다음과 같음













13) 지수 관련 해외 유사 사례(통일부 요청자료). 2. 2012.08.31에 통일부 정세분석국에서 전송받음.

14) FFP. (2006). Promoting Sustainable Security. 9.

15) FFP. (2011). The Failed States Index : An Investment in the Pursuit of Global Stability. 4.

16) The Fund for Peace - The Failed States Index. 2012.08.31. 인용 : <http://www.fundforpeace.org/global/?q=program-fsi>

북한의 실패국가지수(2008-2012)

항목		2012	2011	2010	2009	2008
사 회	 인구압	7.9	8.2	8.5	8.5	8.2
	 난민/국내유랑민	5.3	5.3	5.6	6.0	6.0
	 집단불만	6.6	6.9	7.2	7.2	7.2
	 인간분쟁	4.4	4.7	5.0	5.0	5.0
경 제	 불균형 발전	8.6	8.5	8.8	8.8	8.8
	 경제침체	9.3	9.2	9.6	9.6	9.6
정 치	 국가부패	9.9	9.9	9.9	9.8	9.8
	 공공서비스	9.4	9.3	9.6	9.6	9.6
	 인권	9.6	9.5	9.5	9.5	9.7
	 안보기관	8.1	8.1	8.1	8.3	8.3
	 허구화된 엘리트	7.7	7.4	7.8	7.8	7.6
	 외부개입	8.7	8.6	8.2	8.2	7.9
순위		22	22	19	17	15

자료 : Foreign Policy - Failed States Index : The Rankings. 2012.08.31. 인용 : http://www.foreignpolicy.com/failed_states_index_2012_interactive

3. 국가취약성지수

가. 소개

- 국가취약성지수(The Index of State Weakness)는 정책입안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세계의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분석 및 이해를 돕는 신뢰성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짐

나. 연구기관

- 국가취약성지수는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연구원 수잔 라이스(Susan Rice)와 세계개발연구센터(Glob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의 선임연구원 스투어트 패트릭(Stewart Patrick)이 공동으로 연구하였음¹⁷⁾

17) Brookings Institute - Index of State Weakness in Developing World. 2012.09.03. 인용 : <http://www.brookings.edu/research/reports/2008/02/weak-states-index>

- 브루킹스 연구소는 비영리 공공정책 기관으로 워싱턴 D.C에 소재함. 연구소는 고품질의 연구를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연구하며 그 연구에 기반 하여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권고책을 제공하고자 함¹⁸⁾
- 본 연구소는 1927년 미국의 기업가인 로버트 브루킹스(Robert Brookings)가 설립한 연구소로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어 주로 민주당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음
-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전 세계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해 2012년 1월 18일에 발표한 ‘2011 세계 싱크탱크 순위’에서 ‘올해의 싱크탱크’로 선정되기도 하였음¹⁹⁾

다. 국가취약성지수 사업 진행과정

- 2001년 9월 11일 이후 미국과 기타국가 정부들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장 취약한 국가(the world's weakest states)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해옴
- 2008년에 브루킹스의 선임연구원인 수잔 라이스와 세계개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인 스텐트 패트릭이 ‘개발도상국가의 국가취약성지수’를 만들어 정책입안자들과 연구자들이 취약한 국가들을 분석 및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성 있는 도구를 제공하였음

라. 산출방법

- 지수는 141개의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네 가지 영역에서의 상대적 성과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를 매김. 네 가지 영역으로는 경제, 정치, 안보, 사회복지가 포함됨²⁰⁾

마. 북한의 국가취약성지수 사례

- 2012년 국가취약성지수에서 북한은 평균점수 3.87로 141개 국가 중 15위에 위치함. 점수가 낮을수록 취약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됨. 아래의 표는 20개의 세부 지표별로 나타난 점수임²¹⁾

18) Brookings Institute - About Brookings. 2012.09.03. 인용 : <http://www.brookings.edu/about>

19) 세계 최고 싱크탱크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2012.01.,19). 경향신문, 2012.09.03. 인용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92131235&code=970201

20) Brookings. (2009). Development in Fragile States : The Toughest Cases. 2-3.

21) Brookings Institution. (2008). Index of State Weakness in the Developing World

북한의 국가취약성지수

분야	지표	점수	분야	지표	점수
경제	1인당 국민 총 소득	-	안보	분쟁 강도	10.00
	GDP 성장률	-		인권남용	2.54
	소득불평등	-		갈등 영향 지역	10.00
	인플레이션	-		쿠데타 발생정도	10.00
	규제 품질	0.47		정치안정성 및 폭력부재	6.22
정치	정부효과성	1.42	사회 복지	아동 사망률	8.25
	법규범성	3.38		수질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	7.52
	국민 의견반영과 책임	0.26		영양결핍	5.79
	부패 통제력	0.24		초등교육 수료	-
	자유	0.00		기대수명	6.58

자료 : [Brooking Institution. \(2008\). Index of State Weakness in the Developing World](#)

2. 심층정보 수집 자료집

목 차

예산정책처

1. 북한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개요
2. 북한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예·결산 현황
3. 북한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집행 상 문제점

입법조사처

1. 북한심층정보 수집 설문문항의 타당성 분석
2. 북한심층 설문 수집방법의 효율성 분석
3. 북한심층정보 수집정보의 정확성 및 효과성 분석
4. 타 정부부처와의 정보 중복성 문제
5. 확보된 심층정보의 효과적 사용 방안

도서관

1. 개요
2.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3. 이라크조사그룹(ISG)
4. 미연방수사국(FBI)

북한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효과성 분석

정 문 종 과 장

정 진 욱 분석관

1. 북한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개요

- 통일부 사업 중 북한에 대한 심층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으로는 탈북자·방북자·국제기구 심층정보 수집 사업이 있으며, 이는 탈북자 및 방북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북한의 산업·인문지리·인물 등에 대한 정보를 DB화함으로써 대북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임

2. 북한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예·결산 현황

- 북한심층정보 수집 사업은 2010년에 11억 4,700만원의 예산액 중 7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69.7%의 집행률을 나타냈고, 2011년도에는 9억 3,400만원의 예산액 중 7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79.0%의 집행률을 나타냈음

[표 1] 북한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예결산 현황: 2010~2012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0	1,147	0	±16	1,147	799	69.7	69.7	0	348
2011	935	0	-194	741	739	79.0	99.7	0	2
2012	800	0	-	-	-	-	-	-	-

자료: 통일부

3. 북한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집행 상 문제점

- 동 사업은 2011년도에 소요 예측 미흡으로 인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 동 사업은 외부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탈북자·방북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며, 주로 연구개발비(8억 9,800만원)로 구성되어 있음

- 연구개발비 내에는 면접대상자에 대한 사례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면접대상자의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면접사례비의 단가를 하향조정²²⁾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면접에 소요되는 여비의 집행도 부진하였음
 - 통일부에 따르면, 하나원 교육생에 대한 면접에 있어 교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에만 국한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해외방북자에 대한 심층면접 시 사업추진부서 직원의 입회를 위해 국외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용역수행자측에서 전담하여 면접을 실시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함

[표 2] 북한심층정보 수집 사업 면접자 현황: 2010~2011년

(단위: 명)

연도	탈북자	방북자	면접자 합계
2010	1,712	340	2,052
2011	1,424	97	1,521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북한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여비 예·결산 현황: 2010~2011년

(단위: 천원, %)

연도	세목	예산액	이전용 (세목조정)등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0	국내여비	100,045	0	100,045	50,427	50.4
	국외여비	68,000	0	68,000	19,849	29.2
2011	국내여비	3,150	-1,763	1,387	1,387	44.0
	국외여비	19,935	-7,000	12,935	12,785	64.1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러나 2010년도에도 방북자 감소로 인한 탈북자 위주의 면접 실시에 따른 국외여비 집행 부진, 면접대상자의 수도권 거주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 부진 등으로 인해 예산집행률이 69.7%로 저조하였음

22) 면접사례비 단가를 30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 사업 실시 이후 2년 연속 집행이 부진하였고, 면접대상자의 수도권 거주 비율 등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요소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요에 대한 예측이 미흡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는 면접대상자의 거주지역, 방북자 추이, 면접실시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북한심층정보 수집 관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김 갑 식

요 약

질의 요지

- 북한심층정보 수집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함

(회답일 2012.07.31)

■ 조사·분석 방향

- 관련 자료를 분석함

■ 주요내용

- 북한심층정보 수집 설문문항의 타당성 분석
 - 설문문항 자체는 대체로 타당하다고 봄
- 북한심층 설문 수집방법의 효율성 분석
 - 1:1 면접이 3-4시간 소요되는 바, 다수의 면접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면접자의 능력 여부를 검증해야 할 것임
 - 탈북자의 특성에 따른 정보의 왜곡 가능성을 차단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북한심층정보 수집정보의 정확성 및 효과성 분석
 - 수집정보가 북한정세판단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파악해야 할 것임
 - 본 사업이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간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분석판단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타 정부부처와의 정보 중복성 문제
 - 기본정보와 특수정보를 구분하여, 기본정보의 경우 공유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부처이기주의 방지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부처간 상호 교차검증 시스템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확보된 심층정보의 효과적 사용 방안
 - 전문가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보된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 및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1. 북한심층정보 수집 설문문항의 타당성 분석²³⁾

1) 통일부 주장

□ 「탈북자용」 설문지는 북한의 지역별 산업·인문지리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해 5개 부문 (△피면접자 인적사항 △산업관련 사항 △인문지리 관련 사항 △주민생활 관련 사항 △주민의식) 총 1,657개 문항(160p)으로 구성

□ 「방북자용」 설문지는 5개 부문 탈북자용과 동일 총 462개 문항(59P)으로 구성

□ 북한의 산업 경제 사회 군사 등 각 분야별 실태와 변화 추세에 대한 파악에 초점을 맞춰 양질의 Data획득이 가능한 설문지를 완성

○ △생활비 △배급실태 △물가 및 환율 △장마당 현황 및 거래품목별 가격 △주민의식 등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항목을 총망라

□ 특히 매년 설문지 문항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후 「북한종합DB」(반디스 시스템)에 반영해 오고 있음

○ 설문지는 최대한 객관식 설문으로 구성하여 정량화 비중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DB검색 및 분석 효율성을 개선하였음

○ 정성적 평가를 위한 설문항목도 적절히 배합 정량적·정성적 분석이 모두 가능한 설문지를 완성, 본 사업목적 달성에 최적화된 설문문항으로 구성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2) 조사관 판단

□ 설문문항 자체는 대체로 타당하다고 봄

23) 분석대상 자료가 대부분 대외비이므로 통일부 주장에 대한 조사관 판단을 덧붙임

< 별첨 > 탈북자용 설문지 (주민생활 관련 설문중 일부)24)

A. 시장(장마당) 물가 및 환율

구 분	시점 (년, 월)	시장명 /지역명(시, 군)	가격
쌀 1kg			
강냉이 1kg			
잡쌀 1kg			
밀가루(중국산) 1kg			
감자 1kg			
돼지고기 1kg			
닭고기 1마리			
식용유(콩기름, 중국산) 1병			
달걀 1개			
맥주(북한산) 1병			
세수비누(중국산) 1개			
성인남자 운동화(중국산) 1켤레			
겨울내의(중국산) 1벌			
디젤유 1kg			
휘발유 1kg			
미국 달러화(1달러)			
중국 인민폐(1원)			

24) 설문지(예시 별첨)는 대외 비공개 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추후 일 정협의를 통해 열람해 줄 수 있다고 함.

2. 북한심층 설문 수집방법의 효율성 분석

1) 통일부 주장

- 금년도 본 사업은 피면접자 1,500명(탈북자 1,400명, 방북자 100명)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탈북자 : 하나원 탈북자 700명, 사회편입 탈북자 700명 목표
- 면접방식은 「대면방식」 과 「비대면방식」(우편, 인터넷, 전화 활용 등)이 있으나
 - △수집 정보의 특성 △응답의 신뢰성 △응답률 △면접 소요시간(통상 3~4시간) 등을 감안시 「1:1 대면 면접방식」 이 유효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임
 - 이러한 점을 감안 본 사업은 「1:1 대면 면접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 특히, 탈북자의 경우 하나원 지역 하나센터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 △피면접자 선정 △면접장소·시간협의 등 면접진행 전 과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면접군별 심층면접은 아래 방식으로 추진
 - 탈북자를 통한 정보 수집방법
 - (하나원 입소 탈북자) 매 기수별 입소 탈북자를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하나원 안성 본원 양주 본원 을 직접 방문하여 용역수행기관에서 면접을 실시
 - (사회편입 탈북자) 지역 하나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사업종료나 시작시점('11.10~'12.5)에 입소하여 면접을 실시하지 못한 사회탈북자들 중 면접 희망자를 선정한 후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추진
 - 지역별 피면접자가 선정되면 1:1 면접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多(그룹)면접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인력 및 경비 최소화
 - 방북자를 통한 정보 수집방법
 - (국내 방북자) 용역수행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방북자중 면접 희망자를 선정한 후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방식으로 진행
 - (국외 방북자) 용역수행기관에서 러시아 일본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 현지 연구기관에서 피면접자 선정 및 섭외가 완료되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1:1 면접방식으로 진행

2) 조사관 분석

- 1:1 면접이 3-4시간 소요되는 바, 다수의 면접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면접자의 능력 여부를 검증해야 할 것임
- 탈북자의 특성에 따른 정보의 왜곡 가능성을 차단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3. 북한심층정보 수집정보의 정확성 및 효과성 분석

1) 통일부 주장

- '10년 신규사업 이래 현재까지 총 3,57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이를 「북한종합 DB」에 반영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
- 다만, 각 설문 응답에 있어 동일기관 (기업소 근무자수 생산품목 등)에 대한 설문이라 할지라도 탈북연도별 수집정보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음
 - 피면접자 다수가 응답한 결과를 유효한 정보로 추정하여 CB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집정보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탈북시기별 동일기관에 대한 다른 응답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연도별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각 분야별 분석관들이 관계기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설문응답 결과와 교차분석을 하고 있음
 - 「북한종합 DB」(반디스시스템)에 반영된 수집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정세판단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2) 조사관 분석

- 수집정보가 북한정세판단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파악해야 할 것임

4. 타 정부부처와의 정보 중복성 문제

1) 통일부 주장

- 통일부 외 북한에 대한 정보는 각 기관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음

- 북한 정보를 통합·운영·관리 시 예산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음
 - 정보 수집·분석·평가 등 업무의 특성상 이를 일원화 할 경우 정보의 왜곡, 편중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정보가치, 정보원의 보호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처간 상호연계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이런 이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주요 외교·안보 부처별로 별도의 정보 수집·관리 후 상호 교차검증하여 운영하는 체제가 정립되어 있음

2) 조사관 분석

- 기본정보와 특수정보를 구분하여, 기본정보의 경우 공유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부처이기주의 방지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부처간 상호 교차검증 시스템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확보된 심층정보의 효과적 사용 방안

1) 통일부 주장

- 본 사업은 국내입국 탈북자와 국내외 방북자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지역별 산업·인문지리 등에 대한 정보를 DB화하여 대북정책 수립·분석 및 향후 남북간 통합대비에 활용됨
 - 북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북한 당국에서 공식발표하는 자료와 주장에 대해 탈북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그 정확성과 신빙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활용
- 특히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 등장과 더불어 당, 국가, 군대 내부는 물론 사회경제부문 등 각 분야에 있어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탈북자와 방북자에 대한 면접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실태파악 및 정세분석에 활용해 나갈 예정임

2) 조사관 분석

- 전문가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보된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 및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심층정보 획득을 위한 설문조사 해외사례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자료과

국 회 도 서 관 장

1. 개요²⁵⁾

- 타국의 심층정보 획득을 위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와 유사한 해외사례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의 확산방지 및 확산반대를 위해 유엔감시검증사찰위원회와 이라크조사그룹이 수행했던 관련 조사와 이라크전쟁 발생 후 미연방수사국의 미국 내 이라크인 면접조사가 있음
- 이라크 전쟁 발발 이전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감시검증사찰위원회와 이라크조사그룹은 이라크 과학자들을 인터뷰한 바 있음. 인터뷰 및 기타 정보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2004년도 이라크조사그룹의 보고서는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발표하였음
- 이라크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미연방수사국(FBI)은 이라크 정부와 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미국에 있는 첩자나 테러분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내 이라크인 약 5천여 명을 면접 조사한 바 있음
- 본 회답서에서는 미국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조사 및 기타 이라크인에 대한 면접조사를 수행한 기관별로 살펴보았음

2.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가. 기관소개²⁶⁾

-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The United Nations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 : UNMOVIC)는 UN안보리가 1999년 12월 17일에 발표한 결의안 1284(Resolution 1284)를 채택하여 창설되었음
- UNMOVIC는 이전의 UN특별위원회(UNSCOM)를 대체하였으며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²⁷⁾ 제거 의무 준수를 확인할 의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지속하였음. 또한

25) 아래의 회답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임

26) UNMOVIC - Basic Facts. 2012.09.07. 인용 : <http://www.unmovic.org/>

27) 화학적, 생물학적 무기 및 반경 150km 이상의 미사일을 포함함

UN안보리에서 금지한 동일한 종류의 무기를 이라크가 다시 획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내고 감시함

나. 조사과정

- 2003년 12월에 미국은 이라크 과학자들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은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국외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 무기사찰을 규정한 새 UN결의가 이라크인들을 면접조사하기 위해 이라크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²⁸⁾
- 그러나 이라크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이라크가 아닌 해외에서 인터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²⁹⁾
- UNMOVIC는 2003년 2월 6일에 처음으로 이라크 생물학자 1명을 개별 인터뷰하였으며 이어 7일에는 3명의 이라크 과학자를 추가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고 이라크 외무부가 발표하였음
- 3명의 이라크 전문가들에 대한 개별 면접조사는 이라크 국가사찰위원회 관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됨³⁰⁾
 - 3명 가운데 2명은 유엔감시, 검증, 사찰위원회(UNMOVIC), 나머지 1명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개별면접조사를 받음
 - 인터뷰는 각각 2시간과 3시간 반 가량 소요되었음

다. 조사결과

- UNMOVIC 공식홈페이지에서 이라크 과학자에 면접조사 관련 자료가 있으나 이는 인터뷰가 본격 진행되기 전인 2003년 1월 27일 내용이며 면접조사 결과 및

28) IAEA, 이라크 과학자 국외조사 검토. (2002.12.14). 연합뉴스. 2012.09.06. 인용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289775>

29) "이라크, 과학자 조사 조건부 허용". (2002.12.23). 중앙일보. 2012.09.06. 인용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89940

30) 이라크, 과학자 3명 개별 인터뷰 추가 허용. (2003.02.08). 중앙일보, 2012.09.06. 인용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7061&ctg=13

이후 경과에 관련한 신문기사 및 관련자료는 발견되지 않음

3. 이라크조사그룹(ISG)

가. 기관소개³¹⁾

- 이라크조사그룹(Iraq Survey Group : ISG)은 UN안보리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불법 무기를 찾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던 UNMOVIC을 대체함
- ISG는 합동·다중기관(joint/multi-agency) 정보프로젝트팀이며 이라크해방작전(Operation Iraqi Freedom : OIF)을 지원함
- ISG의 인력은 1천 명 이상의 미국, 영국, 호주 시민들로 구성됨. 이들은 일반 시민과 군사정보부 및 대량살상무기(WMD) 전문가들이며 보안요원 및 보조 지원자들도 포함함

나. 조사과정

- 이라크의 통치, 경제, 안보 및 정보기구에서 활동하였던 前 정부 관료와의 면담 결과는 ISG의 전 이라크 정부 WMD 전략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몇몇 구금자들의 진술은 그들이 연루 및 문책 사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몇몇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 의도에 대해 솔직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음³²⁾
- ISG는 이라크 WMD 프로그램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라크 과학자들을 구금하였음. 이들은 한결같이 “이라크엔 WMD가 없다”고 진술함
- 미 CIA(중앙정보국) 간부로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WMD 수색작업을 지휘·감독해 온 인물인 데이비드 케이는 2003년 7월 말 미 상원 군사위에 출석하여 이라크 과학자들로부터 쓸 만한 정보를 얻지 못했음을 실토했음³³⁾

31) Wikipedia - Iraq Survey Group. 2012.09.06.인용 : http://en.wikipedia.org/wiki/Iraq_Survey_Group

32) Iraq Survey Group. (2004). Comprehensive Report of the Special Advisor to the DCI on Iraq's WMD : Key Findings. 2.

33) 이라크전쟁의 풀리지 않는 의문, 대량살상무기(WMD)의 진실. (2003.09.01). 동아일보. 2012.09.06. 인용 : <http://>

다. 조사 결과

- ISG는 2004년 9월 20일에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 특별고문 종합보고서(Comprehensive Report of the Special Advisor to the DCI on Iraq's WMD)"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 보고서에서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은 1991년 걸프전 직후 폐기되었으며 이라크전쟁 개전 당시 이라크는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결론냄
- 이라크는 핵무기 프로그램의 재건을 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대량살상무기를 운용할 능력도 없다고 판단함³⁴⁾
- 이로 인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보유설과 더불어 후세인을 테러 배후자로 낙인찍기 위해 제기된 이라크-알카에다 연계설도 근거가 없음이 드러남³⁵⁾

4. 미연방수사국(FBI)

가. 조사과정

-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03년 3월 24일 이라크전이 개시된 이후 미국에 살고 있는 이라크인 5천여 명을 면접했으며 약 30명을 구금함
- 이라크전쟁이 시작된 2003년 3월 20일부터 미국 내 이라크인 11,000여 명에 대한 면접조사가 실시되었음. FBI 기동부대(task force)는 전쟁기간 동안 미국 내 거주하는 11,000명의 이라크인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2003년 4월 14일자로 종료하였음
- FBI의 면접조사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임³⁶⁾

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3/08/22/200308220500003/200308220500003_1.html

34) 통일연구원. (2008).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65.

35) 이라크전쟁의 풀리지 않는 의문, 대량살상무기(WMD)의 진실. (2003.09.01). 동아일보. 2012.09.06. 인용 :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3/08/22/200308220500003/200308220500003_1.html

36) FBI Finishes 11,000 Interviews With Iraqis in U.S. (2003.04.17). Fox News, 2012.09.07. 인용 : [htt](http://)

- 미국 내 이라크인들로 인한 본토 및 해외의 테러 위협을 밝혀내는 것
 - 밝혀진 모든 미국 내 이라크 정보요원들을 추방 또는 체포하는 것
 - 이라크해방작전 기간 동안 증가한 보복테러행위(counter-terrorism)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 FBI 국장인 로버트 뮐러(Robert Mueller)는 미국 내 수천 명의 이라크인들이 이라크 주둔 미군캠프에 유용한 정보를 내어주었다고 밝힘. 이라크인들은 자발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병커 위치, 구조적 세부정보, 통신 시스템 및 이라크군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음³⁷⁾
- 수백 명의 FBI관계자가 나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라크인 중 과거 사담 후세인 정부와 관련이 있는 인사와 최근 이라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을 주로 조사함. 심지어는 비자 문제로 관계기관에 억류되었던 수십 명도 포함됨³⁸⁾

다. 조사결과³⁹⁾

-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진 이라크 스파이 또는 테러리스트는 없었음
- 면접조사 결과 약 250건의 보고서가 생성되었으며 이는 미군에 전달되어 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 병커, 광섬유 케이블망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음
- FBI 국장인 뮐러는 면접조사로 얻은 정보가 시기적절하고 훌륭했으며 다른 정보기관과의 간격을 메우는데 적합했다고 밝힘

[p://www.foxnews.com/story/0,2933,84435,00.html](http://www.foxnews.com/story/0,2933,84435,00.html)

37) Mueller: FBI interviews useful to war in Iraq. (2003.03.27). CNN, 2012.09.06. 인용 : http://articles.cnn.com/2003-03-27/justice/fbi.iraqis_1_fbi-interviews-voluntary-interviews-fbi-director-robert-mueller?_s=PM:LAW

38) FBI, 전쟁중 미국내 이라크인상대 정보수집. (2003.04.18). 중앙일보, 2012.09.07. 인용 : http://article.join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3&Total_ID=155613

39) FBI Finishes 11,000 Interviews With Iraqis in U.S. (2003.04.17). Fox News, 2012.09.07. 인용 : <http://www.foxnews.com/story/0,2933,84435,00.html>